



지루한 세상에 대한 낯선 시선,
열린 질서를 향한

여성 행동

발행인: 제 11대 중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장이다예 · 최익영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 발행일: 1999년 11월 16일(월)

나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그녀

나는 그녀였을 뿐
한번도 나인 적이 없었다
나를 가로지르는 '그녀'라는 언명이
숨통을 조여 온다

무엇이 내가 '나'임을 방해하는가?
나는 끊임없이 분열한다
그녀와 나 사이에서

이 세상에 주문을 걸고 싶다
'새로운 세상이 되어라'

하지만 나는 안다
누구도
나의, 우리의 존재를
대신 '찾아 줄' 수 없음을

나 이제 폭발한
경험과 분노를 토해내며
그것은 위험한 한 판 승부이다
나의 존재를 건

하지만 난 확신한다
나의 불만이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님을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른 삶이란 없다!

**“현존하는 힘, 여성들의 행동으로!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여성주의적 자치는
여성 자신을 둘러싼
일상 속에서의 억압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상적 오인의 권력을 전복하라!

2만 명의 연세인이 있다. 2만 명의 연세인 중 50%가 투표권을 가진다. 50%의 연세인 중 30%가 학업을 이유로 또는 동향 사람임을 이유로, 아는 선배배이므로, 나아가서는 후보가 잘 생겼음으로, 혹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정치적 불의나 배제의 결과로 한 후보를 선택한다. 결국 2만 연세인의 고작 15%가 수많은 이유들을 거쳐 한 후보를 선택하면 그들은 학생회장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2만 연세인의 대표다”

그 후 일년동안 이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하나도 없다. 이들의 종파주의가 끝까지 숨어져도 할 수 있는 일은 물론에 찬 글 몇 마디를 도서관 앞에 붙이는 것 말고는 없다. 결국 다음 선거를 기다려보지만 다음 선거에도 작년과 나왔던 똑같은 이들이 선거에 출마한다. 그들은 또 우리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학생들은 선거와 학생회를 떠난다. 학생회 당선자들의 허구적이며 상상적인 오인에서 비롯된 저 불순한 권력으로부터 연세인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자치질서”를 다시 말해야 한다.

“2만 연세”라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5천 여학우”라는 보편적 실체는 없다. 그것이 “연세대학교에 여학우가 5천명이다”라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5000에 이르는 다양한 사고와 가치들이 단지 A 아니면 B 밖에 없는 선택지에 기표했다는 이유로 “5천 여학우의 의지”가 될 수 있는가? 총여학생회는 누구의 어떤 의지와 권리를 대표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므로 “5천 여학우”의 대표가 되기를 거부한다. “5천 여학우”의 권리를 허구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우리의 거부는 부정형이 아니다. 우리의 거부는 파괴가 아니다. 우리의 거부는 긍정형으로서의 생산 행위이다. 우리는 오히려 5천 여학우를 모두가 자신들의 가치와 목소리를 5천가지로 끌어내기를 바란다. 그것이 거대한 불협화음일지라도 이 강요된 정적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대학이라는 공간이 여성들의 목소리로 가득차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자치질서”의 이름이다.

“대표될 수 없는 당신의 권리,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행동,
당신과 우리가 함께 말할 때,
대학과 여성과 자치가 생동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행동 1. 공포탈출 one!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합니다.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 뿐만 아니라 일상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자치규약제정운동을 함께 벌여 나갑니다.



행동 2. 공포탈출 two! 여성의 일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성노동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여대생 살길 만들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행동 3.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일침을! 여성들의 문화 형성하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체육놀이대회, 말하기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여성문화패를 만들어 보시다.

- 새로운 총여학생회는 위의 모든 행동들을 포괄하는 '여정주'
- 여/정/행/동 전본은 기존의 소수의 집행부에 의해 운영되
-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자치'
- 각각의 행동 또한 그 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

총여학생회다!



행동 4. 불평하고 요구하자!

-여자화장실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신축건물에 여학생휴게실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행동 5. 여성학 생활도서관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킵시다.

-총여 산하에 있던 생활도서관을 독립시켜 여성학/여성운동 관련 자료가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이 메꾸실 자리입니다.
함께 여성의 삶에 대해 고민할
개인 또는 자치 단체를 기다립니다.

"여성주의적 자치는
나의 다름을
발현하는 것이고,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질서를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95년도 가을, 새로운 여성운동의 시작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되고 있는 여성의 육체와 그 비참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Rape Me!!" 성정치 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성을 둘러싼 이 사회의 억압과 모순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성정치 문화제는, 오히려 보수 기독교 세력의 폭력으로 인해 더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일상은 정치적이다!"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면서 새로운 여성운동의 폭발적인 시발점이 되었다.

96년도, 총여학생회 - 문제가 있다!

이전까지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여성운동은 다른 학생회와 학생운동의 '하부'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운동의 발전없는 반복, 여학생들의 일상과의 괴리 속에서 제9대 총여학생회는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중심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97년도, 일상의 정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성정치 문화제의 영향을 받고, 일상의 정치에 기반한 독자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몇몇은 제9대 총여학생회가 몰락한 자리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총여학생회의 폐쇄적 모습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일상에서부터 운동하고자 하는, 숨겨져 있던 여성 자치단체들이 만나기 시작했고, 아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계의 여성운동을 시작했다. 무수한 말들을 낱말하던 학생회 체계에 대한 비판 - 그들은 직접 실천으로 옮겼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세대만의 것은 아니었다! 연세대의 여러 자치단체들 간의 연대는 다른 학교와의 연대로 이어졌으며 독자적 여성운동은 서서히 자리잡아가기 시작했다.

98년도,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의 실험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를 추구했던 여성자치연합의 경험에서 나온 새로운 총여학생회 - 여성주의에 입각한 총여학생회를 세워보겠다는 의지의 결과였다. 연세대의 역사 속에서 과연 총여학생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인가? 일상의 정치, 여성주의적 정치 - 과연 총여학생회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인가? 실험은 시작되었다. 그 사이 속속 생겨났던 자치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10대 총여학생회의 실험은 거기에서 끝나버렸다. 학생회는 학생회이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였다.

오늘, 바로 여기.

제10대 총여학생회의 유의미한 실험을 이어받고 또한 그들의 한계와 오류를 뛰어넘고자 우리는 제11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다. 학우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기 전에, 무엇이 그들을 무관심 속으로 내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열린 질서를 향하여, 총여학생회의 경계 허물기. '여성주의'라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여/성/행/동으로 '지구'로서의 총여학생회가 아닌, '여성주의 자치질서' 그 자체로서의 총여학생회를 꿈꾸며.

의적 자치질서'로 구성됩니다.

전 '지구'로서의 총여학생회가 아닌, 각자가 선 자리에서

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를 사고합니다.

이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숙사 가는 길', 그 이후

여성행동 선본 리플렛에 실린 글 '기숙사 가는 길'에 대해 기숙사 자치회 및 고시동에서 자보와 연세춘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선본에서는 성명서를 내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리플렛 글의 맥락과 전체적인 문제의식은 사라진 채 하나의 문구만이 확대되고 비약되었다. 고시동과 자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응과 글들은 '여성행동 선본의 고시동 매도'를 기정 사실로 한 채 그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함으로써 여성행동 선본을 가해자인 것처럼 부각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고시동 및 기숙사 전체에 대해 매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군가가 그 글을 보고서 기숙사생 전부를 변태로 생각할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글과 관련한 사건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흔히들 성폭력은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 또는 일반인과는 다른 극소수의 강간범이나 강간미수범이 저지르는 특수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폭력이란 '여성과 남성의 위계적인 권력관계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구조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일체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은 자신들과는 절대 무관하며 따라서 고시동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숙사에서 직접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몇 명의 성폭력범들을 처벌하거나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술한 과정과 성폭력적 문화를 재생산하는 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론화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여성행동은 이것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사고하지 않으며,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기숙사 가는 길의 가로등 문제, 셔틀 버스 운행 문제, 음란 전화 문제 등에 대해 여성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서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며 자치규약 제정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총여학생회'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 여성 불평등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총여학생회'는 이 억압구조의 기원과 결정조건을 밝히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여성운동'을 하는 곳이다. 또한 묻혀져 왔던 여성의 목소리를 고집어내는 소통과 자치의 실험을 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라면 굳이 총여학생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자, 이제 '여성창조' 선본에게 질문하고 싶다. '총여학생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1년 내내 IVF와 Jitto, 기독교성모임 '마주잡기'에서 한 일들이 학내에서의 여성운동의 실험과 질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1년 내내 여성운동과 관련한 가치적인 행동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채 선거시기에만 화려한 공약을 들고 '짠'하고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의 문제인 것이다.

'여성창조' 선본이 여성억압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의 공약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여성문제는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문제를 개개인의 노력, 개개인의 발전으로 환원하여 여성들이 그 지겨운 여성으로서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오죽 좋으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성운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제를 재생산해내는 상징체계에 도전하지 않는 의사 케미니즘은 텔레비전만 틀어봐도 종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여성운동과 여성주의적 자치질서가 '총여학생회'를 통해서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권력의 대리자로서의 '총여학생회'가 아닌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창조' 선본이 진실로 여성운동을 하고자 하고 그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학내에서의 여성운동과 자치질서 실험의 흐름에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거나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성운동에 관한 당신들의 자세를 되돌아보길 바랄 뿐이다.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당신의 애인은 당신이 스포츠여이길 원합니다

한번사용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체녀막상담 02)3789-9999

체녀막 고민... 혼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생행복

수 며칠 동안 여자화장실에 붙어 있던 광고입니다.

여/성/행/동 선본은 그녀의 육체에 대한 결정권이

그녀의 애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거부합니다.

여/성/행/동 선본은 존재하지 않는 처녀막을 만들어

스포츠와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는

도덕과 지배에 반대합니다.

순결이데올로기는 가라!